

# 新興産油國의 등장과 영향

80년대에 들어 非OPEC産油國들의 세계 原油市場에서의 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이것은 OPEC제국의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공급점 유율이 두드러지게 후퇴하고 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産油國에 의해 조광권이 박탈된 채 철수해야만 했던 메이저들은 대체로 非OPEC 지역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선진국 석유개발사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油價가 상승하자 생산코스트가 높은 北海, 알래스카 North Slope의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英國·노르웨이·멕시코·이집트·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소규모 산유국이 등장함에 따라 非OPEC 산유량은 대폭 증산되었다. 소규모 신흥 산유국이 향후 2-3년 내에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제원유 시장에서 새로운 變數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판매전 가열 예상

예멘, 콜롬비아, 수단, 中共, 앙골라 및 시리아를 포함하는 신흥 産油國들이 OPEC와 경쟁하고 있던 기존의 非OPEC산유국에 가세해서 시장점유율을 놓고 종전보다 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소규모 신흥 非OPEC 산유국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더 많은 판매활동을 벌이게 돼 시장은 더욱 더 Buyer's Market로 치닫을 것이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原油공급 증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여하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WEFA(와튼 경제예측 연구소)에 따르면, 1983년 非OPEC 총 산유량을 세계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3천860만배럴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英國과 노르웨이가 350만배럴을 생산하여 지지

난해에 비해 11% 증가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UAE의 오타이바 石油相은 앞으로 6개월내에 非OPEC권의 산유량이 60만배럴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WEFA는 향후 4년동안 원유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産油國들로서 오만, 濠洲, 이집트, 예멘, 카메룬, 콜롬비아, 中共, 멕시코, 시리아, 수단등을 열거하고 있다.

WEFA의 전망에 따르면, 1983년에 하루 44만배럴의 산유량을 보인 濠洲는 87년에 가만 51만배럴로, 39만배럴을 보인 오만은 45만5천배럴로, 18만7천배럴이었던 앙골라는 24만5천배럴로, 260만배럴이었던 멕시코는 350만배럴로 각각 신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유업계 소식통들은 콜롬비아가 1986년까지 두배 이상의 신장을 보여 하루 20만배럴은 수출이 가능하며 시리아 및 예멘도 각각 30만배럴과 20만배럴씩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非OPEC의 증산은 여타지역, 즉 OPEC 및 서부유럽에서의 산유능력감소에 따라 다소 상쇄될 것이며, 非OPEC제국으로부터 경쟁압력은 반지만, 석유시장에서의 OPEC의 역할은 여전히 상당할 것이며, 생산량도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쉘브론社의 석유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신흥 산유국들은 생산수준을 극대화하려는 정책노선을 걷고 가격 안정판으로 OPEC를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OPEC油價보다는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무역업자, 기타 구매자들은 산유국간에 불화를 초래하는 이간책을 써 더 많은 이익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고, 소규모 신흥 산유국들은 구매자들에게 그들 상호간 또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OPEC 회원국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低價 원유도

〈表-1〉 非OPEC 석유생산능력(83. 1. 1 현재)

(單位 : 10억배럴)

|                | 확 인<br>매장량 | 생산량  | 가채년수 |
|----------------|------------|------|------|
| OECD           |            |      |      |
| 美 國            | 29.8       | 3.2  | 9.3  |
| 캐 나 다          | 7.0        | 0.4  | 17.5 |
| 英 國            | 13.9       | 0.8  | 17.4 |
| 노 르 웨 이        | 6.8        | 0.2  | 34.0 |
| 濠 洲            | 1.6        | 0.1  | 16.0 |
| 小 計            | 59.1       | 4.7  | 12.6 |
| 開途國圈           |            |      |      |
| 멕시코            | 48.3       | 1.0  | 48.3 |
| 이집트            | 3.3        | 0.2  | 16.5 |
| 아르헨티나          | 2.6        | 0.2  | 13.0 |
| 앙골라            | 1.6        | 0.04 | 40.0 |
| 브라질            | 1.8        | 0.09 | 20.0 |
| 콜롬비아           | 0.5        | 0.05 | 10.0 |
| 인도             | 3.4        | 0.14 | 24.3 |
| 말레이시아/<br>브루나이 | 4.5        | 0.17 | 26.5 |
| 오만             | 2.7        | 0.12 | 22.5 |
| 페루             | 0.8        | 0.07 | 11.4 |
| 튀니지            | 1.9        | 0.04 | 47.5 |
| 小 計            | 71.4       | 2.1  | 33.6 |
| 共 産 圈          |            |      |      |
| 소련             | 6.0        | 4.5  | 14.0 |
| 중 共            | 19.5       | 0.7  | 27.7 |
| 기 타            | 2.6        | 0.2  | 13.0 |
| 小 計            | 85.1       | 5.4  | 15.7 |
| 總 計            | 215.6      | 12.2 | 17.6 |

〈資料〉 Oil & Gas Journal

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OPEC에 더 큰 타격

최근 수개월동안 OPEC 산유국들은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할인판매·바터거래 및 나이지리아의 경우처럼 OPEC 가격구조를 도외시한 公示價 인하 등을 통해 대처해 왔다.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이러한 변칙조치는 결국 국제석유시장에 油價 인하 압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신흥 산유국들의 수가 대량 늘어나게 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들의 출현은 北海 산유국들 보다는 OPEC에 더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석유생산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수요이며, 과연 생산량과 가격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需要가 늘어날 것인가의 관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OPEC로서는 너무 많은 시장점유율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들 신흥 소규모 산유국들을 도산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인하를 할 것 같으며, 특히 페르시아연안 아랍 산유국들은 이와 같은 限界 산유국들을 압도할 가격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른다.

油價가 배럴당 22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限界 석유생산국들 즉 신흥 소규모 산유국들에서 생산을 담당하게 될 외국 석유회사들은 아무도 현지 정부가 독촉한다해도 조광권을 보유한채 조업개시를 미루게 되며, 추가적인 탐사개발 작업도 비용상 진행이 중지될 것이다. \*

〈雙龍精油·주간석유에너지정보〉

〈表-2〉 原油생산량 및 非OPEC 산유국의 점유율 변화

(單位 : 1,000B/D)

|                      | 1975         | 1977         | 1979         | 1982         | 1983(상)      | 1983(하)      |
|----------------------|--------------|--------------|--------------|--------------|--------------|--------------|
| 사우디아라비아              | 7,075(13.3)  | 9,206(15.4)  | 9,531(15.2)  | 6,517(12.3)  | 4,302(8.4)   | 5,805(10.7)  |
| O P E C 計            | 27,124(51.1) | 31,076(52.1) | 30,826(49.0) | 18,661(35.1) | 15,853(31.0) | 18,679(34.3) |
| 멕시코                  | 705(1.3)     | 981(1.6)     | 1,461(2.3)   | 2,746(5.2)   | 2,654(5.2)   | 2,719(5.0)   |
| 北海                   | 201(0.4)     | 1,048(1.8)   | 1,971(3.1)   | 2,552(4.8)   | 2,763(5.4)   | 3,018(5.5)   |
| 非 O P E C<br>自 由 世 界 | 14,234(26.8) | 15,446(25.9) | 17,759(28.3) | 19,825(37.3) | 20,388(39.8) | 20,959(38.5) |
| 共 産 圈                | 11,722(22.1) | 13,118(22.0) | 14,227(22.7) | 14,705(27.6) | 14,943(29.2) | 14,829(27.2) |
| 世 界 計                | 53,080(100)  | 59,635(100)  | 62,812(100)  | 53,191(100)  | 51,184(100)  | 54,467(100)  |

註 : 괄호안은 구성비(%)